

지역 소식통

고창군, 기관장 직접 주도

반부패 청렴정책 설명회

고창군이 2일 오전 군청 대회의실에서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전 직원 대상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방향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소개, 2025년 군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분석, 2026년 반부패 청렴정책 중점 추진사항 및 각 부서별 협조사항, 군 부패취약분야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고창군수 주재로 2026년 고창군의 반부패 청렴 정책과 추진 목표를 전 직원과 공유하고,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을 달성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고창 실현이라는 비전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반부패 청렴교육 및 반부패 법령 준수 여부 자체점검 강화, △군민행복 민원상담사 등 민권보호제도 안내,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소극행정 근절 등이었으며, 청렴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부패발생 차단을 위해 전 직원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특히, 군민이 느끼는 청렴체감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홍보시책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어린이복합문화

체육센터 건립 가시화

정읍시는 지난 1월 30일 시청 3층 브리핑룸에서 '어린이복합문화체육센터 건축기획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정읍의 미래 세대를 위한 복합공간 조성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이화수 정읍시장과 유호연 부시장, 각 국장 등 시 관계자를 비롯해 어린이 집연합회 이성미 회장과 원장단, 지역아동센터연합회 김복경 회장 및 센터장 등 총 18명이 참석해 조성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보고회에서는 건축기획 용역을 맡은 제이엔디건축사사무소 심관수 팀장이 어린이복합문화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공간 구성과 단계별 추진 방향 등 용역 최종 결과를 설명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형 RE100 · 에너지환원정책 논의

기본사회 부안본부, 재생에너지 경제적 이익 지역으로 돌려주는 구조 모색

(사)기본사회 부안본부 상임대표 김정기(전북특별자치도의원)에서는 2일 (사)기본사회 강남훈 명예이사장, 정균승 부이사장 등 이사장단과, (사)기본사회 부안본부 공동대표 송인호, (사)기본사회 전북자치도 상임대표 김은영, 지역 분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안형 RE100 및 에너지 환원(가칭 햇빛·바람연금)을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부안·고창 해역에서 추진 중인 서남권 해상풍력 등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흐름과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형성되는 경제적 가치가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설계의 기본 원칙인 실무 쟁점을 논의했다.

이날 김정기 상임대표가 이익공유·주민환원 모델과 함께 자립형 에너지 마을을 우선 과제로 두고, 주민 체감할 수 있는 전환 모델을 병행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안이 향후 유사한 주민 체



감형 사업을 추진할 때도 준비 부담을 가능한 줄이는 재원 설계가 핵심"이라며 "국비·도비 확보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사업 요건과 협의를 주민 생활 속 혜택으로 연결하기 위해 추진해보고자 하는 과제"라며 "마을 단위로 신재생에너지 효율화·운영체계를 묶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모델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환원 체계는 선언보다 설계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향후 자료 정리와 추가 협의를 통해 실행 가능성과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기로 하고, 논의 내용을 토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해 후속 실무 협의를 이익공유·주민환원 모델의 설계 원칙과 추진 절차를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출산급여 지원... 저출생 극복 '앞장'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대상, 본인 90만원·배우자 80만원 지급... 출산일 1년 이내 신청

정읍시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을 위해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에 나선다.

시는 청년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의 양육 부담을 덜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18~39세 청년 1인 소상공인 또는 농어업인이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하고 시에 출생신고를 마친 경우, 여성에게는 본인 출산급여 90만원, 남성에게는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80만원을 지급한다. 출산급여(여성)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에 한해 지원하며 보육시설계사나 탁배기사 등 19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된다.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남성)은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 활동 증빙이 필요하며, 고용노동부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수혜자는 대

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2월 2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신청 기한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다.

이화수 시장은 "이번 사업이 경영공백과 인력 채용의 이중고를 겪는 청년 소상공인과 농어업인들에게 작게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정읍시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에서 제2의 인생을'... 정읍시, 귀농·귀촌 지원사업 본격 시행

농가주택 신축·수리 최대 800만원·영농정착 시 최대 2000만원

정읍시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주거 환경 개선과 영농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2026년 귀농귀촌 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정읍시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농촌 지역으로 전입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귀촌인이다. 아울러 귀농귀촌 관련 교

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주요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농가주택 지원은 세대당 최대 800만원을 기준으로 농촌 주택 신축(설계 포함), 오래된 농가주택 수리(창호, 보일러 교체, 도배, 장판, 지붕 수리 등) 전반적인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영농정착 지원은 세대 특성에 따라 차등 지급해 실효성을 높였다. 만 65

세 이하 귀농인에게는 세대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며, 2030 청년 세대에게는 최대 1,500만원, 2030 결혼 세대에게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귀농귀촌인은 2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세부 사항은 귀농귀촌 통합플랫폼인 '그린데로' 내 정읍시 지자체관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소중한 산림·군민의 생명 수호 '총력'

부안군, 산림재난대응단 40명·산불감시원 49명 발대식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2일 부안군청 대회의실에서 산림재난대응단 및 산불감시원(산림재난대응단 40명, 산불감시원 49명)과 관계 공무원 등 107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산림재난대응단 및 산불감시원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2025년 산불 예방·대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올해에도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으로 산불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나갈 방침이다.

발대식은 산림재난대응단장의 결의문 낭독과 함께 출범한 산림재난대응단은 산불, 병해충, 산사태 등 다양한 산림재난 업무를 통한 수행하는 조직으로 산림재난 대응 인력의 운영 공

백을 줄여 연중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것.

군은 불철산불방지대책본부(2026년 1월 20일~5월 15일)를 설치해 읍·면과 상시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 구축, 산림인접지역 농부산물 파쇄지원 등 산불 예방 및 대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기후변화와 이상기후로 인해 산림재난의 위험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군의 소중한 산림과 군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다는 책임감으로 산림재난 대응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갯벌 이달의 새... '흰꼬리수리' 선정

갯벌식물원 인근서 꾸준히 확인... 건강한 갯벌 생태계 보전 지표

고창군이 2월 '고창갯벌 이달의 새'로 흰꼬리수리(학명 *Haliaeetus albicilla*)를 선정하고, 겨울철 고창갯벌을 찾는 맹금류의 생태적 가치와 갯벌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전개한다.

'흰꼬리수리'는 넓은 날개폭과 강력한 발톱을 지닌 대형 맹금류로, 참수리와 함께 우리나라 해양 생태계를 대표하는 최상위 포식자다. 갯벌과 해안 생태계에서 먹이사슬의 균형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제적으로는 관시종(IC)이지만 국내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흰꼬리수리는 주로 북동아시아와 극동 러시아 지역에서 번식한 뒤, 겨울철 남하해 우리나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월동하는 철새다.

서해안의 갯벌과 간척지, 하구 지역은 흰꼬리수리에게 먹이 섭취와 휴식을 제공하는 핵심 서식지로, 매년 겨울철 관찰이 이어지고 있다.

고창갯벌에서는 갯벌식물원 인근 바위섬 일대를 중심으로 매년 2~3개체의 흰꼬리수리가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 육지와 연결된 고창갯벌은 풍부한 먹이자원과 안정적인 휴식 공간을 갖



추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여러 지역에서 흰꼬리수리의 번식 사례도 보고되며, 이 종은 단순한 겨울 철새를 넘어 우리 생태계 내에서 서식 범위를 회복하고 있는 상징적인 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고창갯벌을 포함한 서해안 갯벌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보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

나윤국 고창군 세계유산과장은 "흰꼬리수리와 같은 최상위 포식자가 고창갯벌을 지속적으로 찾는 것은 갯벌 생태계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Advertisement for the Earth Day campaign featuring a polar bear. Text: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and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It discusses climate change and carbon emissions.